



소수자 청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연구

세발자전거

연구책임 | 한정민 (세발자전거 대표)
공동연구 | 김지윤 (세발자전거 재무담당)
양성익 (세발자전거 실무담당)
최성원 (세발자전거 실무담당)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요약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소수자 청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소수자 청년 현황을 파악하고, 소수자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그 참여가 가시화되지 않는 배경 및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수자 청년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및 진입 시 당면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 인적 구성 및 정책 의제의 다양화를 통한 청년 대표성 확보에 기여할 자료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

□ 연구 방법

소수자 청년 당사자 심층 인터뷰를 통한 공통 요인 및 특성 요인 분석

□ 개선 방안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 소수자 의제 가시화

- 청년 참여자 모집 시 활동 분야 및 활동 예시에 소수자 이슈를 반드시 포함.
- 청년정책 거버넌스 홍보 시 소수자 집단(장애, 다문화, 성 소수자 등)에 해당하는 지자체 내 센터나 관련 단체를 필수적인 홍보 대상으로 선정.
-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및 분과 형성 시 사회적 소수자 분과를 예시로 언급하거나 별도로 형성함으로써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집단적 메시지를 부여.
-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시 퍼실리테이션을 통하여 소수자의 존재를 상기시키도록 약속하거나, 차별과 배제의 금지 규칙을 구성원들과 함께 정함으로써 소수자 인식을 강화.

□ 정책적 제언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주체 및 참여자가 본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고 모집 및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 인적 구성 및 정책 의제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청년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사회적·참여적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목 차

Contents

I	서론 / 239	
	1. 연구 배경 및 목적	239
	2. 연구 방법	240
II	이론적 정책적 배경 / 241	
	1. 소수자 청년의 정의	241
	2. 경기 청년정책 거버넌스 3개년 운영 현황	242
	3. 경기 청년정책 거버넌스 소수자 청년 참여 현황	243
	4. 경기 청년정책 거버넌스 3개년 운영 현황과 소수자 청년 참여 현황 종합 분석	245
III	연구 설계 / 246	
	1. 연구 참여자 모집 방법	246
	2. 인터뷰 대상자 정리	246
	3. 연구 윤리	247
	4. 분석 개요	248
	5. 연구 진행 절차	248
IV	소수자 청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분석 결과 / 250	
	1. 장애 청년의 진입 장벽 요인	250
	2. 다문화 청년의 진입 장벽 요인	257
	3. 성 소수자 청년의 진입 장벽 요인	268
	4. 결과 요약	274
V	결론 / 277	
	1. 연구 요약	277
	2. 정책적 개선방안	278
	참고문헌 / 279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청년 문제’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청년 실업, 청년 빈곤, 세대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를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활동으로 접근하려는 방법론으로 출범한 대표적인 청년 참여 기구이다.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이 시대 청년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당면한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열린 창구인 동시에, 한국 사회가 행정·사회적으로 청년을 호명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행정과 제도로 담겠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청년정책 거버넌스 역시 사회로 정상 편입되어 기존의 규범과 문화를 답습하고 함양한 청년만의 목소리가 제한적으로 담기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청년’이라고 균질하게 묶을 수 없는 장애 여부, 지역, 학력, 사회적 배경, 성별 등의 요인이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운영 및 활동 내외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다루는 주요 의제는 주거, 자본, 교통, 의료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절대 다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의제에 대부분 국한된다.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과 시각이 배제된 채 ‘보통의’ 의제만 다룰 경우 사실상 소수자의 입장은 배제되고, 나아가 대표성이 상실되는 기존 사회의 문제가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 실제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소수자 청년 참여 현황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대표 또는 사무국은 비장애인, 수도권 거주 비장애인 남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적 소수자로 정의할 수 있는 이들은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애당초 진입하고 있지 못하거나, 진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데이터와 연구, 기초자료조차 부재한 상황이라, 당장의 해결 방법을 구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모집 및 운영에 있어 ‘모든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구호로 삼고 있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에서 소수자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속하는 데 진입 장벽으로 기능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남기고

자 한다. 그럼으로써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청년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는 다양한 단위의 목소리와 현실을 정책 의제로 담아내고, 진정 모든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 참여 기구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선행 연구 분석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소수자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해 인터뷰를 실시한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 사회에서 현재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할 수 있는 단위(장애, 다문화, 학교 밖, 은둔형 외톨이, 성 소수자)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며,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5월부터 실시된 선행 연구 분석은 핵심 내용을 간추려 연구보고서 작성 및 인터뷰 실시 시 활용하도록 하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황 파악 결과는 연구보고서의 기초자료 및 연구 참여자 모집 경로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어 8월까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약 2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요약하고, 각각의 특성과 공통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 후 주관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본 연구를 끝마치고자 한다.

II

이론적·정책적 배경

1. 소수자 청년의 정의

정근식(2013)은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에서 소수자라는 개념을 연구자의 위치나 정체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으나, 그럼에도 본 연구는 위 정근식의 연구에서 밝힌 바, 소수자를 ‘특정 사회 속에서 성원권을 갖고는 있으나, 다수자들에 의하여 차별받으며, 스스로를 표현하는 기회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주변적 존재들’¹⁾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소수자 범주로 설정한 집단은 장애 청년, 다문화 청년, 성 소수자 청년이다. 장애와 다문화는 기존 한국 사회의 제도권 내에 포함되어 정책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청년정책 거버넌스에서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거나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점을 포착하였고, 성 소수자는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류 담론으로 대두된 소수자 집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²⁾ 앞서 정근식이 서술한 소수자의 정의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현 상황을 맥락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성원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지원 자격이 소수자 청년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② 다수자들에 의하여 차별받는다라는 의미는 소수자 청년이 사회적으로 다수에 의해 활동 영역이 제한되거나 또는 일상의 공간에서 주류 문화로 인한 곤란함을 경험함을, ③ 스스로 표현하는 기회나 능력이 제한되었다는 의미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지원 자격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졌고, 공적 공간에서 발화할 만한 사회적 차별의 경험도 가진 이들이 왜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가시화되지 않는지의 문제와 결부된다. 그 결과, 장애, 다문화, 성 소수자 청년은 ④ 주변적 존재들이란 의미에 부합하여, ‘주변화된 청년 당사자’로 사회 참여 기능이 대폭 축소된 채로 청년기를 보내게 된다.

1) 정근식,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경제와 사회 100』, 비판사회학회, 2013, pp.184-185.

2) 김진·강혜진,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 - 단체 참여와 유형별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관계」, 『한국정책학회』 28(4), 한국정책학회, 2019, p.112.

또한 기존의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다뤄온 청년정책 거버넌스 의제 유형(주거, 교육, 안전, 일자리 등)으로 미루어볼 때, 장애, 다문화, 성 소수자 집단의 이슈는 다뤄지지 않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수자의 정의와 아울러, 소수자 집단에 해당하면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만 19~34세의 청년에 동시에 해당하는 참여자를 소수자 청년으로 정의하여 본 연구에 참여토록 하였음을 밝힌다.

2. 경기 청년정책 거버넌스 3개년 운영 현황

정보 공개: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또는 청년 참여 기구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구성 현황 표

지자체명	정보공개청구 답변
경기도(본청)	○
가평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및 청년 참여 기구 부존재
고양시	○
과천시	○
광명시	○
광주시	○
구리시	○
군포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부천시	○
성남시	○
수원시	○
시흥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지자체명	정보공개청구 답변
양주시	○
양평군	○
여주시	○
연천군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

2022.07.19. 22:00 기준

위 표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활용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또는 청년 참여 기구(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의 3개년 운영 현황을 종합한 것이다. 가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 중에 있었고, 분과의 형태와 참여 인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3. 경기 청년정책 거버넌스 소수자 청년 참여 현황

정보 공개: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또는 청년 참여 기구(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내 소수자 청년위원 현황 표

지자체명	정보공개청구 답변
경기도(본청)	정보 부존재
가평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및 청년 참여 기구 없음
고양시	정보 부존재

지자체명	정보공개청구 답변
과천시	소수자 청년위원 없음
광명시	정보 부존재
광주시	정보 부존재
구리시	소수자 청년위원 없음
군포시	정보 부존재
김포시	정보 부존재
남양주시	정보 부존재
동두천시	정보 부존재
부천시	소수자 청년위원 없음
성남시	정보 부존재
수원시	정보 부존재
시흥시	정보 부존재
안산시	정보 부존재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 장애인 1인
안양시	정보 부존재
양주시	정보 부존재
양평군	소수자 청년위원 없음
여주시	정보 부존재
연천군	소수자 청년위원 없음
오산시	정보 부존재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1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장애인 1인 (동일인)
의왕시	청년협의체 대학 비진학 1인 청년정책위원회 대학 비진학 2인
의정부시	정보 부존재
이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장애인 1인
파주시	정보 부존재
평택시	정보 부존재
포천시	정보 부존재
하남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및 청년 참여 기구 없음
화성시	정보 부존재

2022.06.25, 14:00 기준

위 표는 앞서 경기도 내 청년정책 거버넌스 3개년 운영 현황을 조사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 소수자 청년 참여 현

황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이다. 이번에는 차례로 안성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의 4곳을 제외하고는 아예 파악이 되지 않거나(정보 부존재 21곳), 소수자 청년위원이 없는(5곳)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경기 청년정책 거버넌스 3개년 운영 현황과 소수자 청년 참여 현황 종합 분석

상기 두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역의 청년 당사자가 지자체 청년정책의 심의 및 제안에 참여한다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기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명목상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열린 공개 모집을 거쳐 별도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운영되어온 것을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 제언하고자 하는 바, 모든 청년에게 열려 있음이 곧 사회와 주류 문화에 잘 편입된 청년만이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하고, 또 소수자 청년의 입장과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의제만 다루지는 형태로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작동한다면, 이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 청년 대표성과 참여 단위의 다양성 확보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경기도 및 경기도 30개 지자체는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고, 그 중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정보를 파악할 수 없거나, 소수자 청년위원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소수자 청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주체가 청년 내의 다양성 및 소수자 청년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내용은 본 연구의 결론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또한 소수자 청년이 없는 경우, 소수자 청년이 자신의 배경 및 위치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거나, 아예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진입하지 못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심화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의 형태로 직접 소수자 청년 당사자를 만나, 소수자 청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이 무엇인지 다음 장과 같이 면밀히 살펴보았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참여자 모집 방법

소수자 청년이 과거 또는 현재 활동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 청년정책 거버넌스 담당 부서 또는 주무관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그외의 경우에는 소수자 청년 단위를 사회적 영역에서 포괄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한편, 참여자 모집 조건에 반드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및 참여 기구의 활동 경험이 있어야 하는 등의 경력 제한을 두지 않았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과정 또는 활동 종료 후 발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바가 있거나, 혹은 몇 년간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왔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가 집중하는 바는 참여자들이 ‘소수자 청년’으로서 그들 각자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시 경험한 진입 장벽 또는 활동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2. 인터뷰 대상자 정리

구분	성명	배경 및 특성
장애	이○훈	시각 장애 청년
	김○성	지체 장애 청년
다문화	선○애	중도입국 다문화 청년
	원○재	결혼이민자 다문화 청년
성 소수자	김○현	트랜스젠더 성 소수자 청년

3.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 윤리에 관해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연구에 활용될 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 또는 가공하여 활용할 것임을 사전에 명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녹취, 필사본 등의 인적 정보자료 등은 절대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특히 소수자 청년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와 참여자 간 위계가 작동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호칭 및 언동에 각별히 유의하였으며, 인터뷰 질문지를 참여자에게 사전에 전달하여 위화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인터뷰는 모두 개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종료 후 소정의 연구 참여비를 제공하였다. 상기 내용은 인터뷰 개시 전 추가적으로 구두 전달하였으며, 참여자의 최종 동의를 거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는 해당 내용을 유목화한 것이다.

구분	연구 윤리
익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연구 참여자 개인 정보에 대한 처리 방법(익명 처리 및 가공 활용)을 사전에 명시하였음. - 인터뷰와 관련해 발생한 자료 및 연구자가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구두로 설명함.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는 공간 또는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함. - 연구 참여자의 배경 및 특성을 고려해 접근이 용이한 지역 또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인터뷰를 진행함.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 사업, 관련 기관, 연구자, 연구 참여비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사전에 문서 또는 이미지로 소개함. - 인터뷰로 얻어진 정보 및 내용의 활용 계획을 충분히 설명함.
위화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연구 특성상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위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호칭 및 언동에 각별히 유의하였음. - 라포 형성을 위해 인터뷰 도입 전 충분히 대화하였으며,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구축함.

4. 분석 개요

소수자 청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소수자 청년의 범주에 해당하는 인터뷰 참여 단위(장애, 다문화, 학교 밖, 은둔형 외톨이, 성 소수자) 각각의 특성 및 진입 장벽 요인을 차례로 분석한다. 한 명의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와 특성을 소략하게 밝힌 다음,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을 최소 두 가지 이상 분석하고자 한다. 참여자의 특성과 요인을 연구자가 분석하고 해석한 내용을 서술하고, 현장성과 진실성을 더하기 위해 음성 녹음을 바탕으로 참여자가 직접 구술한 내용을 덧붙였다. 모든 인터뷰 참여 단위의 특성과 진입 장벽 요인 분석이 끝난 다음, 이를 종합하고 공통 요인을 도출하는 것으로 최종 분석을 마치고자 한다.

5. 연구 진행 절차

해당 연구는 2022년 4월 청년연구 공모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연구보고서 제출 전까지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주제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주제	내용
4월	OT	- 청년연구 공모사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연구 설계	-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연구 진행 계획 수립 및 연구 진행 준비
5월	인터뷰 준비	- 연구 윤리, 활용 공간 등 인터뷰 진행 시 필요한 점검사항 확인 - 인터뷰 기본 질문지 및 세부 주제 작성
	사전 조사	- 참고자료를 활용한 사전 조사 및 문헌 분석
	모집	- 연구 참여자 모집
	컨설팅	- 해당 연구에 대한 1차 연구 컨설팅 진행
6월	인터뷰	- 연구 참여자 선정 - 연구 참여자 인터뷰 및 요인 분석 ①, ②
	자료 조사	-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한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또는 청년 참여 기구 내 소수자 청년위원 참여 현황 조사
7월	인터뷰	- 연구 참여자 선정 - 연구 참여자 인터뷰 및 요인 분석 ③, ④
	자료조사	-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한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또는 청년 참여 기구 3개년 운영 현황 조사
	컨설팅	- 해당 연구에 대한 2차 연구 컨설팅 진행

구분	주제	내용
8월	인터뷰	- 연구 참여자 선정 - 연구 참여자 인터뷰 및 요인 분석 ⑤
	보고서 작성	- 연구 보고서 초안 작성
	컨설팅	- 해당 연구에 대한 3차 연구 컨설팅 진행
9월	연구 완료	- 연구보고서 작성 완료 및 보고서 제출

* 인터뷰 질문 및 내용

인터뷰 질문은 10개의 기본 질문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 단위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질문지를 별도 구성하여 사전 안내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정보 및 참여 경험이 전무한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설립 배경, 취지, 목적, 활동 양상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후 가상의 참여 상황을 토대로 질문하여 응답을 구했다.

- 기본 질문 유형

- ①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② 아주 일상적인 하루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③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으십니까?
- ④ 가족, 친구, 지인과 얼마나 연락을 하고 지내십니까?
- ⑤ 또래 청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⑥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정책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⑦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⑧ 다른 청년과 소통,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⑨ 청년 이슈 중 가장 관심 있는 의제가 무엇입니까?
- ⑩ 우리 사회에서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IV

소수자 청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분석 결과

1. 장애 청년의 진입 장벽 요인

이○훈 (시각 장애 청년, 20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동료상담가)

-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 및 특성

이○훈 참여자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한 저시력 시각 장애 청년으로, 청소년기를 거쳐 진행성 저시력이 이어지다 현재는 사실상 전맹 상태이다.

저는 저시력이었다가 점점 진행이 돼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라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저시력이었어요. 그때까지는 확대 문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대학교 때 더 나빠졌죠.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 RP(망막색소변성증)는. 그런데 제가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전맹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맹이 되어도 상관 없을 것 같고 (중략) 태어날 때 전맹이 안 된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양쪽 눈이 주변 시야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 시력도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참여자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및 정당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청년이기도 하다. 청년유니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청년포럼,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 경기 청년 참여 기구 등 무수한 단체와 조합을 거쳐 성장한 청년 활동가이기도 하다. 현재는 강서구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년간의 경력이 말해주듯 참여자는 사회와 국정, 제도와 정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과 다양한 사례를 가감 없이 표현했다.

2016년도에 정의당에 입당해서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그 전에도, 2015년 말부터 청년유니온 조합원이었고요, 청년 정치에 오랫동안 참여를 해왔어요. 왜냐면 장애

인이기도 하지만 저는 청년이고 장애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활동을 했었고, 2018년부터 재활협회(RI코리아) 장애 청년포럼에서 활동을 했었고, (중략) 2013년도 렛츠라고 하는 장애인권단체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되게 오래되었죠.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기까지) 당사자가 싸워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활동 경력이 좀 되죠.

-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① 코로나19로 인한 참여 활동의 전면 온라인화

코로나19로 인한 참여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전면 온라인화였다. 시각 장애 청년인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무수한 제약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때 실질적인 활동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장애인 청년과의 관계 형성이다. 관계가 형성된 다음 이루어진 활동은 비장애인 청년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기 전 온라인이 우선된 활동에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해가 바뀌며 코로나19를 전제로 시작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은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2019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시) 당시 장애인 분과에서 활동했어요. 2020년도에는 평등 다양성 분과에서 활동했고요, 2021년도에도 평등 다양성 분과였네요. 올해는 평등 인권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일단은 큰 불편은 없고요, 대면으로 활동할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 다른 비장애인 분들의 감수성이 되게 높은 편이예요. 기본적으로 청년 정치 영역 자체가, 비청년 분들이 배제된 청년 정치를 회복하자는 의미가 크게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년 당사자 분들의 장애인 감수성은 높은 편인데, 문제는 비대면으로 진행됐을 때 불편을 많이 느끼죠. 왜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카카오휴집(비대면협업플랫폼)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비대면 플랫폼들, 잔디(비대면협업플랫폼)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다음에 서울시 플랫폼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대시민 투표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대면/비대면 여부가 큰 영향을 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굉장한 배제를 당했어요. (중략) 비대면 활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한편, 참여자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이 온라인화한다고 해서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동료 비장애인 활동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 장(長)을 맡아 분과를 운영할 수는 없었다. 온라인으로 분과를 운영하는 데 장애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자는 경기도 북부권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도중 문화복지 분과의 분과장을 맡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사임해야만 했다. 카톡방을 만드는 것부터 가능하지 않았고, Zoom 회의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면 활동은 전화와 음성만으로 운영 및 진행이 가능하다. 현재 시각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이메일이나 PC상의 대화는 가능하지만, Zoom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는 회의의 운영 및 자료의 송부가 불가능했다. 현재는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만 스크린리더 등을 활용한 시각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상황이고, 기타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에는 의무로 적용되지 않는다.

온·오프 병행할 때, 오프라인으로 일단 관계가 맺어지면, 온라인에서의 불편함도 많이 상쇄되니까 괜찮아요. 왜냐,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면 부탁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비장애인의 도움에 입각해서 활동하면 돼요. (구체적인 어려운 상황이란) 화면 공유도 그렇고, Zoom 링크를 일단 제가 띄우는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파일 공유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관계가 쌓이면, 친구처럼 도와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제가 분과를 만든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닌데, 애초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에서 계속 날짜 왔다 갔다 하다가 깨지고 회의 진행 안 되고 이래버리면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어찌되었든. 신뢰가 쌓여 있는 거랑 안 쌓여 있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런 부분인 거죠. (중략) 활동에 참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장(長)을 맡으면 문제가 돼요. (분과) 운영을 시각 장애인이 하는 것하고, 그냥 참여자가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비대면 운영은 전맹에게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는 상관없고요. 비장애인들이 다 도와주면 되니까요. (중략) 이는 정보접근권이라는 권리이고요,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률로 보장해야 하잖아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그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강행 조항으로 변경).

② 경제적 자립 불가로 가족 내 청년 참여 활동 간섭 심화

참여자의 생활권역은 고양시다. 그럼에도 고양시가 아닌 서울과 경기 북부권역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족, 특히 가족 내 경제력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참여자는 사회적 이슈, 청년 참여 활동에 반감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개입으로 근처 커피숍을 가는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외출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참여자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에 생활권역인 고양시 내 활동은 사실상 어렵다.

(생활권역 및 활동권역을 묻는 질문에) 카페나 술집이나 상권이 있는 곳을 기반으로 활동을 해요. 아무래도 부모님 영향이 크죠. 왜냐면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돌아다닐 때, 카페에 간다고 하면 뭐라고 안 하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런 참여 활동을 정말 싫어하세요.

□ 김○성 (지체 장애 청년, 30대, 노인요양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 및 특성

김○성 참여자는 선천성 운동 뇌세포 손상으로 인한 1급 지체 장애인으로, 양쪽 다리와 왼손 사용이 불편하지만 통증은 없다. 여덟 살에 다리 신경을 연장하는 수술을 통해 들려 있던 뒤통치가 내려가서 땅에 디딜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걷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뛰고 싶을 때 뛸 수 없는 것이다. 오래 전 지어진 건물에서 마주하는 가파른 계단 역시 쉽지 않다. 특히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려운데, 완만하고 적당한 계단은 느린 속도로 다닐 수 있지만 가파른 계단은 고역이다. 최근에는 발목이 말을 잘 듣지 않아 힘들다.

출생 시에 운동 뇌세포를 다쳐 장애가 발생했어요. 심한 장애인이고, 등급은 1급입니다. 불편한 것은 뛰고 싶을 때 뛸 수 없는 것, 그게 많이 답답하죠. 빨리 가고 싶을 때, 건강하게 빨리 뛰고 싶을 때, 운동으로 뛸 수가 없으니까, 대신 자전거를 탑니다. 감사하게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가지고 있고요. (도보가 불편하다 하셨는데, 계단은 어떠하냐는 질문에) 계단,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는 건 쉽지 않고요, 완만한 계단은

조금 느린 속도로 다닐 수는 있어요. 내려가는 게 어려워요. 넓은 계단 같으면, 걸어보니까 한쪽 디딤발만 계속 밟고 똑같이 올라가면 되더라고요. 왼발부터 시작했으면 계속 왼발로 올라가고, 오른발로 시작했으면 오른발로 계속 올라가고 합니다. 적당한 각도의 계단이 편해요. (다리에) 감사하게도 통증은 없어요. (8세에 했던 수술) 수술은 잘 되었고요, 성장하면서 늘려놓은 운동 세포보다 키가 조금 더 자랐다는 느낌이 최근에 들어요. 발목이 요즘 마음대로 잘 안 되어서 그게 조금 불편해요. 발목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래서 통증보다도, 우리가 운동 많이 하면 빠근한 것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조금 일찍 찾아오죠. 운동은 많이 못해요. 만약 장애가 없었다면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우고 정복하고 싶은 운동은 있는데, 수영하고 싶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다리를 막 저어야 하는데, 무릎을 펴서 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참여자는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하다. 노인을 기초적으로 돌보고 지원하는 대면 업무부터 사무와 행정 등 실무를 보기도 하고,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거나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여자는 자신의 전공인 사회복지학을 살려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사회복지와 노인 돌봄이라는 업무에 큰 의미와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있었다.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큰 규모의 노인요양원이예요. 감사하게도 전공 계열 회사여서, 자리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부감 없이, 적성에도 맞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일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같이 알아보고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아서, 경쟁력 있게, 재미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어르신들 케어하는 업무를 해요. 요양원이 크니까 사무 행정 업무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밖에 나가는 일도 많고요. 운전해야 하는 일도 많고요. 어르신 모시고 병원도 다녀와야 하고. 업무가 한정적이지 않고 범위가 넓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수행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어르신과 인간관계를 맺듯이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업무로 취급하는 순간, 어르신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노인복지를 하면서 ‘내가 왜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어르신들께 꿈과 가슴

뛰는 설렘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년기에 있다고, 생각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몸이 불편해졌다고, 웃음과 미소와 꿈을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그 소망을 항상 제공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① 청년 교류의 단절

참여자는 지자체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자산 형성 사업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다. 나아가 그러한 사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 2기 활동은 아버지의 권유를 통해 시작할 수 있었다. 참여자는 SNS 또한 기본 메신저와 웹 포털, 동영상 스트리밍 외에 거의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목이 협소하였고, 또래관계의 범위와 양이 현저히 적어, 매주 다니는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과, 직장생활에서 적절하게 지내는 동료들 외에 대화하고 소통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장이 없었다. 참여자는 또래 간의 모임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관계와 청년정책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었다. 모임이 있으면 나가고 싶은데, 모임이 아예 없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도 했다.

(지자체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사업에) 참여를 못한 거죠. 있는지 몰라서. 그랬어요?(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려줘요.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이 정말 처음이에요.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은 아버지의 권유로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광고를 보시고 권유하셔서. 제가 알아보고 그럴 수는 없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정보가 있는지 잘 몰라서. 비구체적이어서. 아버지가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간 거죠. SNS는 카카오톡, 네이버 검색, 유튜브 동영상을 봐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은) 예전에 싸이월드까지 했었는데, 사생활을 어디까지 노출할 것인가에 관해 생각이 많아서 이걸 계속해야 하나 싶어요.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멤버들 간의 모임을 필요로 해요. 또래들 간의 모임이 필요하고. 마치 동아리처럼. 계속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그런 모임을 지속해갈 수 있죠. 지역사회에는 없어요. 교회 멤버뿐이에요. 교회에도 (청년정책 관련 정보가) 있을 법한데 없어요. 교회와 직장 외에는 교류가 없어요. 보통의 청년들을 만날 기회는 부족했죠. 학교를 이 지역에서 다닌 것도 아니고, 이사도 여러 번 다녀

서, 지역사회인 인물들이 제 입장에선 부족하네요. 찾아다녀본 적도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교류나 프로그램 참여는) 안 했어요. 시간이 부족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버지 사업을 돕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느라 할 수 없었어요. 또래 장애인 청년들과의 교류도 특별하게 없어요. (청년들과) 교류가 없는 것에 같증이 있어요.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참석할 텐데, 모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센스나 감각이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②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실망감

참여자는 2020년 청년정책협의체 2기에 참여하여 일자리 분과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동시대 청년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과는 달리 모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모임이 있다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나중에는 모임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는 모인 멤버들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의견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의견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했다고도 꼬집었다. 참여자는 이러한 이유와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청년정책협의체 3기로 연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는 여전히 있었다. 다만 협의체 내 리더십 문제와 모임 지속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 요원해 보이고, 특별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 더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참여자가 보고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및 활동 지속의 장애 요인은 참여자 개인의 경험인 동시에,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고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운영 및 구조상의 장애이기도 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하나의 종론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고, 참여의 효능감을 경험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이합집산으로 흩어지기 쉬운 점을 참여자가 지적한 것이다.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 2기 활동) 재밌었어요. 시간 맞춰서 다 같이 모이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서로의 생각을 또래들끼리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모아지는데, 거기에 아웃풋이 얼마나 있었나. 다들 에너지 쓰고 시간 써서 모이는데, 그만큼의 아웃풋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의견들이 흐지부지되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단합이 잘 안 됐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모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연락도 다 끊기더라고요. (협의회 3기 연임을 결정할 시점에) 직장생활로 바쁘고, 직장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기도 했고. (협의회 활동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참여는 할 수 있는데,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개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려워요. 먼저 활동한 사람들이라든지,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당시 일자리 분과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과위원의 의견과 생각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어요. (의견을 수렴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모임 필요성이 있었죠. 그런 자리와 현장은 만들어졌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리드할 것인가의 영향이 좌지우지한 거죠. 모임 지속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 못해요.

2. 다문화 청년의 진입 장벽 요인

□ 선○애 (중도입국 다문화 청년, 20대, 대학생)

-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 및 특성

선○애 참여자는 2016년 중학교 3학년 때 중국 길림성에서 한국으로 중도입국한 다문화 청년으로, 당시 양육자는 모두 중국인이었으며, 현재 양육자 한 사람은 한국으로 귀화하였다. 중도입국 시 참여자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으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서울 '지구촌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며 생활하였다. 이후 서울 인문계 여고에 재학 중 고양시로 전학, 고양시민자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다문화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였다.

지금도 언어를 계속 배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1년 배우고 나서(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한국어는 했었던 것 같아요. 수업 듣거나,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휘는, 국어적인 지식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책에서 보면 모르는 것이 여전히 있고요. 그래도 처음 배웠을 때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그때는 아예 모르는 것을 배우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중간중간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느낌이에요.

참여자는 중도입국 직후 한국어를 빠르게 익힌 편으로, 청소년기 또래 집단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교과서를 읽고 학습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 대학에서 국제통상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현재에도 수업에 언어적인 어려움은 없다. 다만 심도 있는 감정을 전달하거나 논리적인 언어를 전개하는 등 심화된 의사소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완전히 익히는 것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나, 비슷한 배경을 공유하는 또래 다문화 청년과 비교했을 때는 언어를 잘 배운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한다.

모국어랑 한국어랑 했을 때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감정적인 표현들? 내 생각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글쓰기, 어떤 일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문법적인 것, 어휘적인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외의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언어를 굉장히 빠르게 배우고 괜찮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 보면 언어 자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의사소통도 못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참여자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나 또래 청년들과 교류한 경험이 거의 없다. 코로나 19로 전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었고, 오프라인 수업 재개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학 캠퍼스에 방문하지 않아 동시대 청년들을 접한 경험이 매우 적다. 대학 외의 활동으로는 참여자의 출신 학교인 고양시 다문화 대안학교, 고양이민자통합지원센터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고양시 다문화 청년네트워크에서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활동 멤버이자 졸업생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① 청년 교류의 단절

참여자는 대학 캠퍼스 내의 정보 외에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유통하는 청년제도 및 청년정책 관련 정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청년기본법, 청년 기본수당, 청년 통장 및 청년 자산 형성 사업 등 그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알려진 편인 청년정책 이슈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성인이 되고 대학에 진학한 이후 고양이민자통합센터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고, 물리적인 거리 또한 멀어져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 사업에 대한 정보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학교 소식, 학과 정보, 수업 내용에 국한되어, 청년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참여자는 특별히 함께 어울리는 학과 내 모임과 단체 또한 없어, 더욱 동시대 청년과 소통할 수 없었다. 또래 청년과의 접촉 및 교류 단절로 인해 사실상 청년정책으로부터의 고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는 온라인 수업의 전면화와 오프라인 모임 제한을 통해 참여자의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청년정책, 청년 관련 제도를 들어보았는지 묻는 질문에) 저는 들을 경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따로 단체에 속해 있지도 않고, 센터(고양이민자통합센터)에 더 이상 다니지도 않아서, 졸업을 하고 나서 점점 그 센터랑 거리가 멀어지면서 온전히 대학교에만 모든 일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책 활동이 있어도 대학 안에서의 활동을 하거나, (캠퍼스 내, 웹 포탈상의 정보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② 언어 표현의 어려움

앞서 참여자의 생애 및 특성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참여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수월하더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거나 맥락과 배경을 고려한 논리적 언어를 전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의사소통상의 표현과 일상어를 구사하는 것에는 큰 장애가 없지만, 스스로 생각한 바와, 그것을 충분히 내포한 문장을 정확하게 발화하는 것에 불편감과 불충분함을 느끼고 있다. 참여자의 이러한 특성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법령사항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함께 파악해야 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기능 수행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언어를 초반에 배웠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지?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였다면, 지금은 표현을 그럴듯하게 해도, 모국어를 구사할 때랑 ‘외국어는 외국어구나...’(외국어는 많이 다르구나) 말을 못하기보다는, 이 느낌을 어떻게 전달

할지 그게 잘 안 돼서, 사고적인 거랄까요? 네이티브와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있고, 그 나라만의 어떤 사고방식, 문화적인 배경? 그런 영향도 있고, 외국어로 저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따라해도, 표현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냥 언어가 다르면 되게, 말을 구사하는 방식, 어순 이런 차이 때문에... 온전히 저를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③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 소수자 청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을 상상한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태여 다문화 청년임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밝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이다. 역설적으로 참여자는 다문화 청년으로서 살아가며 겪는 가장 큰 고민을 다문화 청년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이라 언급했음에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장에서는 다문화 청년이라는 맥락을 소거한 채로 ‘일반 청년’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해온 것에 따르면, (다문화 청년이라는 배경을) 밝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밝힐 수 있으면 밝히고 싶은 생각은 없고 (중략) (다문화, 소수자 청년이 호명된 자리라면) 오히려 당당해지지 않을까. 초대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문제를 다루러 간 자리이기도 하고... 밝혀진다고 해서 부끄러운 문제는 아니니까. 뭔가 당당함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 이 사회에서 이런 존재가. 당당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굳이 안 밝혀도 되는 자리라면 특별하게 구분짓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평범한 대다수처럼, 오히려 그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소수자 청년으로서) 정상적이지 않은 범주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당함이 좀 덜 있고 (중략) 대부분의 평범함을 유지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또한 참여자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참여 여부를 결정지를 주요인으로 모집 분과 및 활동 범주에 ‘다문화’ 또는 ‘사회적 소수자’의 포함 여부를 꼽았다. 보편적인 청년으로서의 커다란 불편감이나 정책적 관심은 없기에 적극적인 관심은 없다고 밝혔으나, 다문화 청년으로서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이라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시의 활동 양상 역시 ‘다문화’ 또는 ‘소수자’

범주에 대한 언급 및 운영상의 고려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다문화 청년으로서의 활동과 일반 청년으로서의 활동으로 나누어 생각한다는 것이다. 전자라면 다문화 청년으로서의 주거, 교통, 복지이며, 후자라면 일반 청년을 기준으로 한 주거, 교통, 복지라는 것이다.

(다문화 청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청년정책 거버넌스라면) 조심스러운 수준에서 초점을 다문화 청년으로서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에 집중할 것 같아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모집 시 다문화, 소수자 청년 관련 분과가 있다면 더 참여할 수 있을지) 네, 더 내 문제인 것 같으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을지) 다문화 카테고리 모집에 들어가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문화 없이 단지 주거, 교통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버스를 타면서 불편함이 있었나?로 생각한다면, 다문화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면 다문화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겪은 불편함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훨씬 더 큰 범주와 복잡하면서 와닿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소수자, 다문화라는 한 카테고리가 나머지 주거, 교통, 복지, 의료 등 이런 모든 측면을 포함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문화인으로서 나머지 부분을 겪게 되었을 때 불편함이 있었나 없었나,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일반인으로서 생활하면서 겪은 불편함이 없더라도, 다문화인으로서의 이 사회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복지도 좋은 편이고,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교통도 좋고, 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회에 100% 만족하고 있다,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거든요, 그럼에도 애착이 안 생기고 소속감이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봤을 때, 소수자로서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 원○재 (결혼이민자 다문화 청년, 20대, 사업자)

-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 및 특성

원○재 참여자는 베트남 남부 호치민 근처 중소도시에서 성장하다 2018년 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5단계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처음부터 4단계(높은 단계일수록 고득점)를 취득할 정도로 높은 성취도와 적응력을 보였다. 참여자의 진술에 따르면, 보통 이민자는 처음에는 2단계 내지 3단계 정도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5단계를 취득하기까지 1~2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참여자의 경우 2018년 입국 이후 곧바로 혼인과 임신, 출산을 연이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곧바로 5단계를 취득했다. 나아가 곧바로 이민자 통합센터에서 ‘이중언어’ 수업을 들으며 양육, 대외활동을 병행할 만큼의 학습과 성취의 욕구를 보였다.

4단계 공부하고(4단계를 목표로 공부하고) 5단계 공부해서 한국 국적 취득했어요. (중략) 그때 되게 고생했어요. 애기 데리고 공부하고. 애기가 생겨서 처음 한국 오고 6개월 동안은 공부 못했어요. 입덧이 되게 많이 심했어요. 6개월 동안 입덧을 계속했어요. (출산 전) 마지막 3개월 안에는 편하게 쉬고 아이도 낳고(6개월 이후부터는 안정이 되어서) 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들(다문화 이민자)도 시험 보잖아요. 대부분 다 2단계나 3단계 들어가요. 왜냐면 5단계, 4단계 시작하면, 공부 잘하면 5개월만 공부해도 국적 취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2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데, 저 되게 급한 성격이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짧은 시간 안에 끝냈어요. 애기 울음소리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애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애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붙어서 옆에서 (아기를) 보고 있으니까 되게 고생했어요. 신경도 많이 쓰이는 거죠. 집중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애기가 자면 공부할 수 있는데 왜 힘들다고 그러냐고 하는데, 사실은 아기 보잖아요, 아기 볼 때 힘들었는데, 애기가 자면 우리도 좀 쉬어야 하잖아요, 애기가 잘 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힘들어서 공부 못해요. (국적 취득 이후에는) 활동 좀 하고 싶었고, 거기서(이민자통합지원센터) 여러 프로그램 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다 공부하고 있는 이중언어 수업요. 그 프로그램이 열리면 듣고 있어요.

그만큼 참여자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빠르게 기능하고자 하였고, 자신이 가진 역량과 재능을 펼치고 싶은 열의 또한 컸다. 이를 반증하듯 참여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및 목표 달성 후 이루어진 지역 거점 성과 공유회에서 자신의 학습 경험과 사례를 발표하였고, 이를 본 주변의 권유로 ‘다문화 이민자 말하기 대회’에 나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임신과 출산 이후 우울함과 갑갑함을 느꼈던 참여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함에 따라 곧바로 외부로 시선을 돌려 각종 대외활동과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이중언어 공부를 이어가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왔다. 그만큼 능력을 가졌고 자신 또한

그것을 믿고 있으며, 스스로 표현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했다.

참여자는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4급에 도달하고 직접 이중언어 교육 PPT를 만들고 강의를 진행할 만큼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며 능동적으로 활동해왔다.

(다문화 이민자 말하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때. 2019년이었어요. (2019년에 국적 취득과 대회 입상 등 많은 일이 있었다는 말에) 제가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되게 급하고, 한국에 와서 바로 아기 생기니까 공부 못하고 되게 갑갑했어요. 우울증도 생기고, 해야 되는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기 낳고 딱 일주일 만에 정리하고, 내가 올해 뭐 해야겠다 하고 목표를 딱 세워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딱 써놓고, 그때 2019년에 운전면허도 땔어요. 다 정해서 써놓고, 하나씩 하는 거예요. 다행히 기회가 많았어요.

-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① 주류 청년정책으로부터의 소외

참여자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민으로, 지자체의 홍보물과 페이지, 게시글을 팔로우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자산 형성 사업 등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까지 있었음에도, 세부 조건에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번번이 참여하지 못했다.

(청년정책 중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집까지, 가족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대상자인데, 가족이 돈을 많이 벌면 기준을 넘어서버려서 대상자가 되지 못해요. (청년정책에 대해 잘 알아보신 것 같다는 반응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있잖아요, 제가 욕심이 많고 알고 싶은 것이 많아서, 네이버에서 계속 찾아요.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경기도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뭐가 올라와요. 이해 못하는 것도 많은데, 자꾸 찾아봐요.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더 읽어보니까 또 조건이 있어요. 집은 2억이나 3억 이상 되면 안 되는 거고, 가족의 재산이

나 집의 경제력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부자가 아닌데도 집까지 같이 하니까 못 받는 것 같아요.

참여자가 속한 가족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적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및 기초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를 현재 실시 중인 청년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라는 참여자의 배경을 고려할 때, 기존 청년정책의 동향은 이민과 결혼, 출산, 국적 취득이 몇 년 안에 동시에 이뤄짐으로써 가족에 편입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문화 청년의 삶을 소외시키기 쉽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약 10년 이상을 청년으로 살아갈 것이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경제력의 기준에 따라 주류 청년정책으로부터 다문화 청년이 소외되는 지금의 상황은 이들 역시 동시대 청년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청년의 공통적 특성’이 희석되는 효과를 낳는다. 달리 말하면, 기존 청년정책이 대학생 대상의 학자금 지원이나 취·창업 또는 자산 형성 사업 등의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교육 영역, 문화 영역, 생활 영역, 참여 영역의 활동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소외되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이는 청년정책의 범주를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세분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지원 영역 간의 균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② 비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와 국적 취득 준비, 이중언어 프로그램 참여, 말하기 대회에서의 입상 경험이 있는 참여자 역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터뷰 진행에도 막힘이 없이 유창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던 참여자였지만 그 역시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조금만 벗어나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자주 쓰는 단어는 괜찮은데, 너무 전문적인 단어가 나오면 모르죠. 들어본 적 없으면 그냥 모르는 거고, 문장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알 수도 있고.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탈 때, 2년 전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보고 “애는 푹푹하네” 그랬어요. 그런데 푹푹하다는 말은 푹푹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저는 그게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짹어 보인다고 하는 건가? 하는 의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그

랬어요. “애는 뽀뽀하니까”라고, 그래서 뽀뽀하다는 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똑똑한 거라고 알려주셔서 ‘아~ 그렇구나, 그런 단어구나’ 했죠. ‘뽀뽀하다는 것이 어리다는 건가? 애는 바보라는 건가?’ 같은 여러 의미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TV 보니까 ‘아, 애는 뽀뽀하네~’ 하고 나오는 것도 보고 알았죠. 진짜 그런 경험 많아요. 한국 사람이라 대화한 경험이 별로 없고, 남편이라 가족과만 대화하니까, 다시 물어볼 수 없고, 그냥 너무 자신이 없어요. 다시 물어볼 자신이 없고 그냥 “네네” 하고, ‘아, 애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할까봐, 창피한 느낌? 모르는 단어들이잖아요. 이 아주머니가 설명하면 또 이해 못 할까봐 더 안 물어보는 거고.

참여자 A가 이민자통합센터에서 열리는 다문화 이민자 대상 수업과 프로그램에 등록하더라도 수강생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고, 한국 청년과의 경우는 더 적다. 따라서 주로 가족과 의사소통을 하며 정해진 말과 필요한 의사소통만 수행해왔고, 보통의 한국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러한 참여자의 특성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시 언어적인 진입 장벽 및 장해 요인에 해당될 수 있다. 청년이라는 공통 범주 안에서도 이질적인 배경이 드러날 수 있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특성상 낮은 언어가 교차되고,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용어가 반복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청년정책(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참여 단념

평소 온라인상의 정보를 자주 탐색하는 참여자 A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들어본 바가 있었다. 하지만 그간 청년정책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었고,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했기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역시 당연히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 정보를 보고도 지나쳤다고 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들어본 적은 있어요.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들어봤지만, 금방 지나갔어요. 이런 청년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어요. 없었지만 외국인 교육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많이 배워요. 문제점이나, (문제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죠. 청년들에게 취업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가 성격도 활발해서, 센터에서 젊은 애들 만나면, 이야기 좀

하고 그러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안내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꼭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공장에서 힘든 일 있잖아요, 거의 외국 사람이 하잖아요. 시골 쪽에 나무 하거나 밭일 하는 거, 거의 다 외국 사람이 하잖아요. (중략)

이로 인해 기존 청년정책의 주류에서 소외된 참여자가 아예 청년정책 관련 이슈에 관심을 줄이게 되었고, 대외활동의 욕구가 왕성하고 다문화 청년으로서의 활동 의지가 강한 참여자가 활동을 사실상 단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참여자는 평소 다문화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취업 정보 격차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해석이 있을 만큼 사회 현안과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인터뷰 중 참여자가 보고한 다문화 청년의 실업 문제는 지역 다문화 센터와 다문화 청년 노동자 간의 연계 확대 및 직업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접근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이슈이다. 단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발굴이 필요한 정책 이슈였을 뿐이다. 참여자가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다문화 청년 당사자로서 다문화 청년 노동자의 현실과 어려움을 발화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참여 기구로서의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정책 관련 홍보 및 모집 공고 글을 지나쳤을 때의 심정을 묻자) 좀 슬펐어요. 왜 난 안 되지? 슬프다기보다는 섭섭하다고 해야 하나? 홈페이지에서도 지원해주고 하는 게 많은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알아봐도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집이 사업을 하니까,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중략)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거주·활동지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에) 참여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내가 없어요, 거의. 그냥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이어도 그냥 넘어가요, 어차피 다 안 되니까.

실제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참여 욕구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는 바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 많게는 50~60명의 참여자가 모일 수 있는 공간임을 알려주어도 답은 같았다. 참여자는 다문화 청년으로서 서로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안내할 수 있는 자리 of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었다. 낯선 사람, 한국 사람과 소통하는 것에 긴장을 하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어렸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

지만 지금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더 많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래야 한국말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의 형태를 설명한 후) 그러면 바로 신청할 거예요.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참여하고 싶고, 의견 좀 내고 싶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면 좋겠어요. 한국에 좀 살았잖아요. 길진 않지만.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고, 어려운 것도 갑갑한 것도 이야기해주고 좋죠. (중략) (다문화 이민자 중) 한국에 오래 살아도, 집에만 있으니까 가족밖에 모르고,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조그만 공간에라도 모여서, 이런 거는 어렵다, 이런 거 모른다, 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이 인터뷰 자리처럼)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앞서 밝힌 요인과 같이, 참여자는 비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읽고 쓰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단어를 검색하고 찾아볼 수만 있으면 시간이 걸릴 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는 큰 장벽이 없었다. 참여자의 언급에 따르면, 언어에 초급-중급-고급이 있다고 할 때, 책은 고급까지, 말은 중급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 했다. 실제로 참여자는 에세이와 같은 대중 서적은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을 갖고 있었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에 따라 사회과학 서적도 읽어낼 수 있었다.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은 참여자의 독해 능력을 반증한다. 이를 고려할 때, 비일상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장해 요인만 해결된다면, 참여자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참여자가 꼽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다문화 청년들이 한국 사회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 세 번째는 다문화 가정에서 육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3. 성 소수자 청년의 진입 장벽 요인

□ 김○현 (트랜스젠더, 30대, 직장인)

-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 및 특성

김○현 참여자는 아동의 놀권리를 주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상근자로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하게 된 배경에는 참여자의 전공이 사회복지학인 것과, 오래전부터 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 및 실무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기존에 다니던 근무지에서 2019년 권고사직을 당해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 참여자는 권고사직 이후 오랜 기간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고 했다. 이 시기를 단기 일일 아르바이트와 국민취업제도 참여를 통해 버텼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당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알선된 일자리에서는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참여자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근무지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거듭 받은 것이 그 경위라고 한다.

제가 백수를 거의 2년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랑 겹쳐서 더 어려웠고, (중략) 단기 일일 알바 하든지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해서, 월세 낼 정도로만 받더라고요. 퇴사는, 그 회사랑 저랑 안 맞아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제가 2019년 8월부터 호르몬을 시작했어요(호르몬 주사).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이력서는 여자로 되어 있고. 본인이 맞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으니까. 해탈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지금 회사는 이력서에 성별을 안 썼거든요. 그냥 제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입사하고 나서. 왜냐면 주민등록번호가 2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무국장님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말하고 끝나셨고, 임원 몇 명과 사무국장님 정도는 제 상황을 알고 계세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일하다 보면 젠더라는 게. 그냥 서류에 성별 쓸 때, 그럴 때 말고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논바이너리인지 알게 뭐예요. 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알선해주기도 했는데, 거기서 알선해준 데에서 한 달 정도 일했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왜 치마 안 입느냐, 왜 화장 안 하느냐, 왜 머리를 안 기르느냐고 자꾸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었죠.

참여자는 2006년 ‘아수나로’라는 청소년인권행동 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

을 시작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이전부터 참여자가 깊이 고민하던 성별 고정 관념 및 성별 이분법에 관한 의문을 구체화하게 되었고, 아수나로 소속 활동가의 글을 접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 자신을 논바이너리로 정체화하고, 2009년에는 바이너리 남성으로 정체화하여 지금까지 트랜스젠더로 살고 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로, 트랜지션이 진행 중이다. 현재 4주에 한번 병원에 내방하여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 참여자는 2009년 정체화 이후 10년 동안 가족과 친구, 지인에게 말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커밍아웃을 했다. 이와 함께 참여자는 비영리 시민 단체인 행동하는성 소수자인권연대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작년부터 활동 중이다.

* 바이너리: 둘로 구분되는 것,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젠더 정체성.

* 논바이너리 :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성별 구분을 벗어난, 규정되지 않은 젠더.

2006년에는 아수나로 활동을 했었는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라고. 보통 사람은 바이너리를 먼저 알고 논바이너리로 가는데, 저는 논바이너리를 알고 나서 바이너리로 갔어요. 논바이너리를 어떻게 알았냐면, 아수나로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논바이너리라고 글을 썼어요. 그 당시 온라인 카페가 있었거든요. ‘어, 이게 무슨 정체성이지?’ 하고 찾아봤는데, ‘어, 나랑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나는 바이너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의 바이너리 정체화는 2009년에 했고, (커밍아웃을)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다가 늦었지만, 보통 트랜스젠더들은 20대 초반에 많이 하는데(트랜지션을),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회사에서도 커밍아웃이 되었고, 그 회사를 나중에 나오게 되었고, 아무튼 오랫동안 시도를 못하다가 트랜지션을 시작하게 된 거죠. (중략) 가족들과는 아직 싸우고 있고. (중략) 정체화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해하는 데 몇 년 걸렸어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 몇 년 걸렸어요. 말하고 몇 년 동안 연락 못하고 지내다가, 최근에 본 지인도 있고. 근데 오히려 확실히, 선입견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인권 활동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오픈되어 있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성 소수자, 퀴어 인권 활동가가 아니라도, 장애인 인권이나 청소년 인권운동이나, 그런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참여자는 인터뷰 진행 중 조심스럽고 경계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소 긴장한 모습이 었다. 각각의 질문에 답을 했지만 가능한 말을 아끼고 단문 형태로 답을 했고, 답변의 중간중간 생각하거나 침묵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① 사회적 차별 경험

참여자는 성 소수자로 살아가며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 ‘병원 가는 것이 힘들다’, ‘이력서를 쓸 때 힘들다’, ‘신분증을 찾으러 갈 때 힘들다’고 답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참여자는 많은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것은 남성 아니면 여성일 것이라는 성별 고정 관념에 기초한 성별 이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서류, 행정상의 문제이다. 이러한 절차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참여자는 그 자신은 정체성에 대해 더 이상 혼란을 경험하지 않고, 완전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서술할 수 없는 서류 형식의 문제와, 이를 설명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대 및 사회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참여자는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당사자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아야만 하며, 이로 인해 벌어지는 심리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묻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냥 그렇다고 해야 하는’ 정해진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 가는 게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물어본다는 건 아는데,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본인이 맞느냐고. 왜냐면 거긴 (서류상에) 여자로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은 그나마 쿼어 프렌들리한 병원이 있어서 나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심한 병원엔 접수대에서 그 질문을 또 듣고, 진료실에서 또 듣고 그래요. 그래도 의사들은 그나마 그런 걸 덜 물어봐요. 약국 가면 또 물어보는데, 이때는 가족 분 약 타러 왔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 그냥 그렇다고 해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는 질문에) (침묵) ‘도대체 여자 같은 게 뭐고 남자 같은 게 뭘까?’라는... 시스젠더 여성 분의 목소리를 가진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남성으로 패싱되는 목소리를 가진 여자 분이 계실 테고. 옛날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자 본인데 목소리가 이래 가지고 오해받는다고, 그

런 게 사연으로 나오면 웃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차별 경험의 경로가 주로 목소리인지 묻는 질문에) 네, 맞아요. 왜냐면 호르몬 전에는 아무리 남성 패싱이 되고 싶어도 안 됐거든요. (중략) (관공서는 어떠하냐는 질문에) 등본 같은 거 신청하는 건 인터넷으로 되는데, 신분증 찾으러 갈 때 그러죠.

* 해당 인터뷰 내용은 행정 서류상에는 여성으로 지정되나, 실제 외형은 성별 고정 관념에 따라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외형과 목소리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적인 차별 경험을 서술한 대목임.

* 시스젠더 :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 패싱 : 주로 제3자에 의해서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특히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요인은 ‘목소리’이다. 목소리는 개인의 성량과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고, ‘남성적인 목소리’, ‘여성적인 목소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호르몬 주사를 통해 참여자의 목소리가 남성적인 것으로 바뀌고, 서류는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참여자에게 사회는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참여자가 호소하는 ‘당사자임을 확인하려는 반복적 질문’에 대한 이슈는 비록 상대는 그럴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성 소수자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은 채 ‘당연히 없는 존재’로 패싱되는 경험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다. 참여자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신이 포함된 성 소수자의 낮은 사회적 위치성을 거듭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가 ‘성 소수자’이기에 겪게 되는 사회적 차별이다. 일터, 병원, 행정기관으로 이어지는 친밀한 사회적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참여자에게 청년정책 거버넌스라는 참여 기구의 환경 역시 거리감이 느껴질 것이며, 동류의 차별 인식에 노출되기 쉬운 공간처럼 여겨지기 쉽다.

②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효능감

참여자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정책에 대해 낮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가 탐색한 청년정책은 대부분 연령대가 해당되지 않거나,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경우였다. 성 소수자 이슈 외에도 참여자가 갖고 있는 청년 이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는데,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 전세 대출, 청년 기본소득, 의료 관련 서비스 혜택에서 모두 해당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참여 조건은 해당되나 연령대가 맞지 않은 정책의 경우에는 연령대를 청년의 연령 기준에 맞게 확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청년정책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도 만 19세부터 24세까지만에 안 줘요. 그래놓고 청년 어찌고 붙여놓는 걸 보면 ‘나는 청년이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생기고... 중기청 같은 경우도 저는 못 받거든요. 집이 있어서. 대상은 되는데, 집이 있어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제가 자가가 있다고 하면 옆에 아휴는 부럽다고 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하나도 쓸모가 없거든요? 제가 가서 살 집도 아니고. 갖고 있는 집은 전세를 쫓아요. 저는 월세에 살고 있고. 집 내놓았어요, 매매로. 그런데 안 나가서. 외근 나갔다가 해당 지역에서 발견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지원사업이 인상적이긴 했어요. (중략) 적합한 청년정책이 있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거다 싶은 게 없더라고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같은 경우도 졸업한 지 5년 이내여야 받을 수 있고, 제가 5년이 넘었거든요. 30대가 되면 경제적 능력이 확 생기나? 그것도 아닌데. 제가 이거를 해볼까 관심이 가는 게 없었어요. 나이도 안 되고. (중략) (청년정책에 관하여)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대상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청년 기본소득을 예시로) 대부분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들어가 있는 청년이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트랜스젠더로 산다는 것을 묻는 질문에) 과연 청년의 소득으로 성 확정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소 900만 원이 드는데,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가슴 절제 수술도 어떤 병원은 600만 원이고, 어떤 병원은 900만 원이에요. (중략) 부모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부모의 경제 능력이 된다면, 커밍아웃을 해서 잘 되면 부모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제 돈 벌어서 밥벌이하고 살 거거든요. 오히려 제가 엄마 용돈을 줄 정도의 관계가 되어서. 이런 경우는... 제가 제 수술비를 벌어서 해야 하는데, 과연 15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어느 세월에... 월세가 싼 것도 아니고... 식비도 비싸고...

참여자가 특히 경제적인 이슈와 관련한 청년정책을 많이 언급한 배경에는 청년의 낮은 소득으로는 성 확정 수술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는 청년과 성 소수자라는 각각의 사회적 이슈가 교차되는 지점에 참여자가 서 있음을 의미했다. 성 소수자로서 성 확정 수술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선택한 자신이 되는(being) 존재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 저소득 청년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참여자는 성 소수자 청년으로서 주변의 지지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처럼 기존 청년정책에 낮은 효능감을 갖고 있는 참여자가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인지하고, 활동에 참여하기에는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이 많다. 나아가 성 확정 수술을 희망하는 참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해당 수술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참여자에게는 자기 자신이 되는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문제이자,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하는 주제일 수 있다. 이러한 참여자가 성 소수자 영역의 활동 범주 외에 보통의 청년 이슈를 다루는 것은 먼 이야기이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미루어, 성 소수자 청년과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관계는 단순한 정보 전달 및 홍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③ 또래 청년에 대한 두려움

또래 청년과 교류할 때의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 참여자는 포비아(phobia: 혐오, 공포)로 대답했다. 퀴어가 아닌 사람들이 아웃팅을 하겠다며 퀴어를 협박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그 자신은 이미 커밍아웃을 했기에 괜찮지만 다른 성 소수자들은 그것이 몹시 두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활동가들, 특히 인권 활동가들은 성 정체성에 관한 감수성이 높은 편이었다는 앞선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변을 내놓은 점은, 성 소수자가 청년 참여 기구를 떠올릴 때, 다수의 청년과 교류하는 모습을 연상할 때 두려움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참여자는 또래 청년과 교류하는 것에 낮은 기대감을 보고했다. 특별히 무엇인가 바뀔 수 있으리라 여기지 않는 듯했다. 참여자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지원 시 요구되는 서류에도 성별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그런 건 하도 익숙해서 괜찮다’는 답을 했다.

보통 퀴어들의 정체성을 아는 비퀴어들이 막 아웃팅한다고 협박하고 그러거든요. 네

엄마한테 이야기해버린다거나, 네 가족한테 이야기할 거라고, 쿼어 포비아들 같은 경우는. 저라면 “해!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뭘...”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많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중략) 그리고 이미 하는 활동이 너무 많아요. (성 소수자 이슈 외에) 더 벌리고 싶지 않아요.

* 쿼어: 성 소수자라는 뜻이나, 기존의 주류 사회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함.

한편 참여자는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력서의 성별란을 없앨 것을 답했다.

4. 결과 요약

앞서 참여자 특성에 따라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장애 청년, 다문화 청년, 성 소수자 청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결과를 나열하여 총 13가지의 진입 장벽 요인이 도출되었다. 해당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성명	배경 및 특성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장애 청년	이○훈	시각 장애 청년	① 코로나19로 인한 참여 활동의 전면 온라인화 ② 경제적 자립 불가로 가족 내 청년 참여 활동 간섭 심화
	김○성	지체 장애 청년	① 청년 교류의 단절 ②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실망감
다문화 청년	선○애	중도입국 다문화 청년	① 청년 교류의 단절 ② 언어 표현의 어려움 ③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 소수자 청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원○재	결혼이민자 다문화 청년	① 주류 청년정책으로부터의 소외 ② 비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 ③ 청년정책(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참여 단념
성 소수자 청년	김○현	트랜스젠더 성 소수자 청년	① 사회적 차별 경험 ②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효능감 ③ 또래 청년에 대한 두려움

13가지의 진입 장벽 요인 중 모든 소수자 청년이 보고한 진입 장벽 요인이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고, 또 같은 집단의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진입 장벽 요인이 드러났으며, 집단에 국한된 진입 장벽 요인이 개별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공통 요인	① 청년 교류의 단절 ②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효능감 ③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인식 및 태도	
특성 요인	장애 청년	- 온라인 활동에 대한 어려움 (시각 장애 청년의 경우)
	다문화 청년	- 언어 표현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성 소수자 청년	- 사회적 차별 경험 및 또래 청년에 대한 두려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소수자 청년은 ① 청년 교류의 단절을 보고하며 또래 청년으로 구성된 모임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를 드러냈다. 해당 모임은 개인적인 일상을 공유하고 여가 시간을 함께하는 정서적인 특성부터, 또래 청년으로서 필요한 도움과 청년정책 정보를 주고받는 합목적성을 동시에 내포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 청년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커뮤니티의 탐색 경로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합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거나, 모임을 지속하고 이끌어 가는 방법을 획득하지 못하는 등의 현실에 직면했음을 보고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 교류의 단절이 지속된 시간이 늘어나고,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오래 머물러 있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②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효능감을 보고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청년정책의 탐색 방법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호소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알맞은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정책의 참여 조건이 까다로워 결국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보고했다. 청년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아쉬움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효능감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참여 의지를 떨어뜨리는 한편, 청년정책에 대한 회의와 불만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③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인식 및 태도를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대상인 사회 다수의 청년에게 기대하는 인식 및 태도와 같았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청년 다수가 모이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조직적 환경에서 사회적인 인식 및 태도가 그대로 반영될 것을 고려하였고, 그 내용은 사회적 소외 및 차별 경험의 반복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함께 활동할 청년들이 소수자 청년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소수자 청년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개방성, 수용성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반대의 경우는 참여 동기가 크지 않았다.

V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오늘날 ‘청년 문제’로 불리는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청년 당사자의 참여 활동과 정책 제안으로 해결하려는 방법론으로 시작된 청년정책 거버넌스에서 이른바 소수자 청년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시작되었다. 소수자 청년은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 있거나, 진입을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활동하기에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리기 쉽다. 이에 소수자 청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입 장벽 요인 연구를 주제로 총 기간 4~9월, 실제 연구 기간 5~8월 약 4개월에 걸쳐 해당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수자 청년을 장애 청년, 다문화 청년, 성 소수자 청년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장애 청년 2인, 다문화 청년 2인, 성 소수자 청년 1인 총 5인의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 교류의 단절과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효능감, 그리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인식 및 태도를 공통적으로 보고하여, 해당 요인에 대한 개선과 정책적 조치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소수자 청년 집단별 특성 요인으로는 장애 청년의 경우 온라인 활동에 대한 어려움(시각 장애 청년의 경우)이, 다문화 청년의 경우 언어 표현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성 소수자 청년의 경우 사회적 차별 경험 및 또래 청년에 대한 두려움이 각각 보고되었다. 이러한 집단별 특성 요인 또한 앞으로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 설계 및 집행에 있어 충분히 숙고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2. 정책적 개선방안

(1) 개선방안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 소수자 의제 가시화

- 청년 참여자 모집 시 활동 분야 및 활동 예시에 소수자 이슈를 반드시 포함.
- 청년정책 거버넌스 홍보 시 소수자 집단(장애, 다문화, 성 소수자 등)에 해당하는 지자체 내 센터나 관련 단체를 필수적인 홍보 대상으로 선점.
-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및 분과 형성 시 사회적 소수자 분과를 예시로 언급하거나 별도로 형성함으로써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집단적 메시지를 부여.
-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시 퍼실리테이션을 통하여 소수자의 존재를 상기시키도록 약속하거나, 차별과 배제의 금지 규칙을 구성원들과 함께 정함으로써 소수자 인식을 강화.

(2) 정책적 제언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전담 부서 및 운영 주체, 참여자가 본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고 모집 및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정책 거버넌스 내 인적 구성 및 정책 의제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배경의 청년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청년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사회적·참여적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 갈등을 축소하고 다원화된 사회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현민, 「소수자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2001년 이후 장애인 운동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007.
- 정근식,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경제와 사회 100』, 비판사회학회, 2013.
- 정의철, 「소수자 운동으로서의 기자단 교육의 성과와 대안적 방향 모색: 이주민의 목소리 내기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1(3), 한국언론학회, 2017.
- 김선기·옥미애·임동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정책 거버넌스 현상 읽기: 청년 당사자 운동의 정치적 기회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회, 2018.
- 최하예·황성수,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 수단 유형 분석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3), 2018.
- 김진·강혜진,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 - 단체 참여와 유형별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관계」, 『한국정책학보』 28(4), 한국정책학회, 2019.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한국 소수자 우대정책의 특징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6(3), 2019.
- 이현우·이지호·한영빈·오세제·서복경·조은주, 『국내외 청년정책 실태조사보고서』, 서울시청년청, 2019.
- 이탁연,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
- 김대현, 「[차별금지] 성 소수자 인권운동 연대체의 자리 찾기」, 『내일을 여는 역사』 79,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20.
- 오세제,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연구: 광역 지방정부 실태 비교를 통해」, 『현대정치연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0.
- 오세제·김동희, 「2021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단계와 성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실태 분석을 통하여」, 『현대정치연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